

“광주·전남 자립형 지역발전대책 수립해야”

지방분권시대 재원 감안 무조건적 정책 고집보다

미래 핵심 기반시설·신규산업 전략적 제시 필요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과거 국토불균형 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이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자립형 지역발전 대책을 수립하고 역동적 균형발전정책 수립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조건적인 균형 정책을 고집하기보다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지역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 프로젝트, 콘텐츠 등을 전략적으로 제시하고 밀어부쳐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정부부처에 광주시는 12개, 전남도는 10개 등 22개 공약사업과 공통추진사업, 지역 현안 사업 등의 반영을 요청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새 정부 국정

과제 선정에 146개 지역공약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 광주·전남도의 대선공약 등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지역의 과제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사업의 소요재원은 무려 178조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모두 구체적인 재원 마련계획 없이 장밋빛 그림을 그리다 실패한 사례를 되풀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약사업의 조정작업과 함께 재원 마련을 위한 과제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이 문재인 정부에 수도권, 영남, 충청 등에 비해 구축되지 못한 철도·공항·항만·도로 등 사회기반사

설의 중·장기적인 계획의 보완 및 일부 시급한 시설의 조기 착공을 요구하면서 지역 미래와 연관된 신규 산업 투자, 기존 주축산업의 구조조정, 문화 및 농어촌 분야 경쟁력 강화 등을 실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급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는 수도권, 동남권과 함께 국토 3각축인 서남권의 거점국제공항인 무안공항 시설 보완 및 활성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전남 중남부권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목포~보성 간 철도의 조기 건설, 영광~광양 간 서남해안일주도로(국도 77호선),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고속전철화 등을 들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토대로 다각화된 국토공간구조 속에서 대전~광주~대구를 잇는 ‘첨단산업 삼각형’ 조성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경제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광주·전남이 육성해야 할 신규산업으로

는 신에너지산업과 바이오산업이 거론되고 있다. 에너지산업 인력양성과 R&D 개발 시급, KEPCO-Tech(한전공대) 설립, 광주권 R&D 특구 확대·지정, 에너지밸리 조성특별법 조기 제정, 한전의 신에너지 개발가능 강화와 함께 매출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식품기업 유치 및 육성 등이 세부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건철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국토의 특성과 동북아 지정학적 잠재력을 살려 서해안과 남해안을 끼고 있는 국토 서남권에 외국기업이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동북아 자유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경쟁력은 지역별로 발전잠재력이 높아지고, 지역부존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따른 정부의 형평성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제고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中 쓰촨성 산사태 120여명 실종... 15명 시신 발견

지난 24일 새벽 중국 남서부 쓰촨(四川)성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희생된 15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전날 오전 6시께 쓰촨성 아바티베트족·장(羌)족 자치주의 마오(茂) 데시(懋)진 신모(新磨)촌에서 산사태로 흩어지며 쓰러져 내려오면서 주말 이른 시간대에 쓰러졌던 산골 마을을 덮쳤다.

산사태로 62가구의 주택이 매몰돼 모두 120여 명이 실종됐으며, 수색 작업을 통해 흩어지던 시신 3명을 구출하고 15구의 시신을 확인했다.

현지 정부는 1급 특대형 재난경보를 발령하고 중장비를 갖춘 수색구조팀과 구급대 등을 투입해 수색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쓰촨성 정부는 아직 실종 상태인 118명의 명단을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있다. 하지만 생명 탐지장비와 탐지견 등을 동원한 탐색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추가 생존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현지 정부는 아직 실종 상태인 118명의 명단을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했다.

신모촌을 찾았던 관광객 중 매몰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23일 마을에 들어왔던 관광객 142명은 모두 연락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 5시간 만에 구조된 일가족 3명은 마오현 인민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을 줄 만한 중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일가족 중 3살짜리 아이는 아직 매몰된 상태이다.

연합뉴스

시진핑, 홍콩 반환 20주년 행사 참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주권의 중국 반환 2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홍콩을 방문한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이 기간 홍콩에서 홍콩 반환 20주년 대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제5기 내각 취임식에 참석하고 홍콩 지역을 시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소식통을 인용해 시주석이 오는 29일부터 3일간 홍콩을 방문한다고 전한 바 있다.

SCMP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오는 29일 부인 평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홍콩에 온 뒤 당일 저녁 량춘잉(梁振英) 행정장관이 관저에서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이 홍콩을 방문하는 것은 2013년 취임 후 처음이다. 시 주석은 오는 30일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 부대를 시찰한 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과수 재해보험 국고보조율 60%로 인상을”

농약대 지원 단가도

전남도, 정부에 건의

전남도가 가뭄과 우박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농가의 현실적 지원을 위해 과수 농약대 지원단가와 재해보험 국고 보조율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 현행 ‘농업재해 복구지원 기준’에 따른 복구비 중 과수 병해충 방제 농약대로 턱없이 부족한 ha당 63만원의 지원단가를 10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가 지원이 가능한 재난지수(재난지원금 산출지표)도 현행 30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중 다른 품목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큰 과수의 경우 보험료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 농가 부담을 줄여줄 것과 함께

보험 가입 품목도 지난 5월 31일 우박 피해를 입은 블루베리를 비롯 사과, 사과, 사과 등 노지채소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의 경우 극심한 가뭄으로 일부 지역에서 모내기과 직파가 불가능한 실정이나 벼 재해보험 중 ‘이앙·직파 불능’ 상품의 가입 시기가 5월 8일로 조기 마감됨에 따라 2018년부터는 5월 20일까지 연장해줄 것도 당부했다.

서은수 전남도 농림축산식품정책관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농가의 현실적 지원을 위해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농업재해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발굴, 정부에 건의해 이 가운데 상당부분을 정부정책에 반영시킨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찾아가는 국민인수위’ 구성

하승창 수석 30일 광주 방문

국민인수위원회는 25일 ‘찾아가는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0일 광주, 다음달 5일 대구지역에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방문한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그날을 대전을 방문, 권선택 대전시장 및 시의장단과 면담하고 국민소통 방안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찾아가는 국민인수위원회@대전’을 개최, 대전지역 사회혁신가와 시민 100여명을 만나 대전시민이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듣고 지역 사회 혁신 의제를 발굴했다.

국민인수위 측은 “하 수석의 지역 방문은 국민인수위원회와 같은 국민소통 기구의 전국적 활성화뿐 아니라, 그동안 수도권 중심 개혁·혁신에서 탈피해 지방과 함께 하는 새로운 사회혁신을 구상하기 위한”이라고 밝혔다.



‘6·25의 노래’ 합창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정부 주요 인사, 군 수뇌부, 각계 대표, 6·25 참전용사, 참전국 외교 사절, 군 장병 등이 참석해 열린 6·25 전쟁 발발 67주년 정부 기념식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6·25의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

국정위, 文대통령 방미 전 ‘100대 과제’ 마무리

부자증세·공수처 등 매듭

7월 중순께 대국민 보고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하기 위해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공약들 가운데 이른바 ‘부자증세’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포함하는 검찰개혁안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도 차례로 논의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또 최근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인사검증 기준 개선안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국민 보고는 7월 중순께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보고 후 보름여 동안 대통령의 의견을 참고해 정책을 다시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25일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는 28일 이전에 100대 과제

를 1차로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는 7월 중순께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도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와 조율이 끝난 사항을 언론에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에 배부하기 위한 보고서도 별도로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부처가 현장에서 내는 의견을 7월 중순에 발표할 ‘최종본’에 담아내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애초 7월5일까지였던 국정기획위 활동기간 역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일단 7월15일까지 열흘간 기간을 연장하고, 활동 백서를 만들기 위한 일부 조직은 그 이후에도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나 지방공약 TF 등 국정기획위 내부에 마련된 별도의 논의기구들 역시 국정기획위와 함께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인사검증 기준 개선안에 대해서는 청문회 정국에서 국민의 관심이 커진 만큼 100대 과제 발표와는 별도로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

부동산 전문가 신재민대표의 특별세미나

성공적인 토지투자를 위한 실전투자법

2017년 토지보상 19조!
토지투자 기회는 지금이다!

전국 아파트시장의 전망
황금알을 낳는 토지투자 트렌드 분석

수익형 / 차익형 유리한 투자방법은?
대한민국 개발지 분석비법 공개!

전문가의 1:1 무료 자산상담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 | |
|-----------|---|
| 광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6월 26일(월요일) / 오후 3시~5시 ■ 주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308~309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광주시 지하철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역 5번출구 직진 220m도보) |
| 수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6월 29일(목요일) / 오후 3시~5시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벨류하이엔드호텔 6층 (분당선 수원시청역 10번 출구 200m직진 / 버스: 국민연금공단, 경인일보경영장 앞) |

부동산 가치분석 전문가 신재민 대표의 방송안내

매일경제 TV “생방송 부동산” 출연중

OBS “행복부동산연구소”에 출연해 온 신재민 전문가 앞으로는 매일경제TV “생방송부동산”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찾아뵙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 생방송 :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 재방송 : 매주 목요일 오전 1시

세미나 문의 : 02)786-3888

NAVER 경제채널 매일경제TV 를 검색해주세요